

# 이제는 관상어도 반려문화 시대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관상어산업 기반 강화, 관상어산업의 미래산업화, 문화가치 창출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활력있는 관상어산업 구현을 위해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5년간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1차·2차 종합계획을 통해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2025. 12. 경북 상주) 등 생산·유통·창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관상어 생산 기술 연구 및 보급 등 산업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관상어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이러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반려문화와 혁신 기술이 공존하는 활력있는 관상어산업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수립하였다. 관상어산업 규모를 2025년 4,443억 원에서 2030년 5,15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①관상어산업 기반 강화, ②관상어산업의 미래 산업화, ③관상어 문화가치 창출 등을 추진한다.

## 【① 맞춤형 육성부터 창업 지원까지... 관상어산업 기반 강화】

먼저, 품종특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5대 관상어 전략품종을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관상어 품종을 집중 육성한다. 더불어, 노후화된 관상어 양식시설에 순환여과설비 등 첨단 스마트 시설을 도입하거나 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현대화를 도모한다.

교육, 창업, 홍보, 수출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의 교육·창업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 임대, 경영자문, 시제품 제작 및 홍보 등을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국내 품평회·박람회에 해외 전문가 초빙, 우수 품종 관상어 전시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경북 상주), 사천시 관상어 교육창업 지원센터(경남 사천) 등

또한 관상어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도 만들어 나간다. 산업 육성 및 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전담하도록 한다. 관상어 전문 해설사, 수조 관리자 등 새로운 관상어 자격증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민간 자격증인 관상어 관리자 자격증을 직무 능력별로 세분화하고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조금\*을 지속 지원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상어 판촉,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운다.

\*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납부한 금액에 정부 출연금을 더하여 조성한 자금

## 【② 관상어산업의 미래 산업화】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되어 수질·질병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수조와 관상어 용품 등을 개발하여 관상어 사육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손쉽게 관상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각시붕어, 벼들붕어 등 토속 품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품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기존에 보면서 즐기기만 했던 문화에서 벗어나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관상어 문화도 조성한다. 관상어 품종별 특성, 사육정보, 질병관리 등 관상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펫 피쉬(Pet Fish) 플랫폼’ 구축, 디지털 물명 등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리치료 콘텐츠 개발, 우리나라 대표 토속 관상어 상품(굿즈) 개발·홍보 등을 통해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 【③ 일상에서 즐기는 관상어 문화가치 창출】

아쿠아드림버스\*, 팝업전시관, 찾아가는 맞춤형 관상어 교육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관상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작년부터 개최한 ‘스마트양식 도전해(海)\*\*’ 경진대회 아이디어 부문에 스마트 관상어 양식 분야를 추가하는 등 국민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실물 수족관, 디지털 체험존, 퀴즈 키오스크 등을 이동식 차량에 설치하여 소외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체험 기회 제공

\*\* 스마트양식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 및 우수기술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관상어 반려문화도 만들어 간다. 관상어 생산·유통·사육 과정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보급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상어 무단 방류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과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관상어 관련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검역을 시행하고, 양식장 대상 질병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질병 관리도 강화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제는 관상어도 반려문화 시대라며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에서 관상어를 쉽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하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욱 활력 넘치는 관상어산업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630)
		담당자	사 무 관	임상욱 (051-773-5683)

**참 고**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비전**

반려문화와 혁신 기술이 공존하는 활력있는  
관상어산업 구현

**목표**

- |    |   |
|----|---|
|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상어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산업 기반 강화</li> <li>◆ 관상어 혁신기술 접목을 통한 미래 산업화</li> <li>◆ 관상어 문화가치 확산 및 반려시장 저변 확대</li> </ul> |
| 정량 | ◆ <b>국내시장 : ('25) 4,443억원 → ('30) 5,150억원</b>   |

**전 략**

**전략별 추진과제**

**1. 관상어산업 기반 강화**

- 1 생산·유통 기반 강화
- 2 관상어 비즈니스 활성화
- 3 관상어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2. 관상어산업의  
미래 산업화**

- 1 AI 기반 응용제품 개발 및 관상어 기술 고도화
- 2 디지털미디어 활용 강화

**3. 관상어 문화가치 창출**

- 1 일반 국민의 관상어 문화체험 확대
- 2 관상어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
- 3 관상어 분야 동물복지 실현

## 1. 관상어산업 기반 강화

- (1-1. 생산·유통기반 강화) 품종별 맞춤형 육성, 시설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산업기반 강화
  - \* 관상어 5대 전략품종 선정 및 맞춤형 육성 전략 마련, 순환여과설비, 자동사료급이기 등 첨단 스마트 양식시설 도입 및 자금 등 지원
  - \*\* 초기 창업기업 대상 자금·컨설팅 및 사무실(무상) 임대, 마케팅 등 지원
- (1-2. 관상어 비즈니스 활성화) 관상어 비즈니스 허브 확보, 품평회·박람회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 \*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경북 경주, ~'28) 완공, 소양 권역 등에 신규 건립
  - \*\* 통번역·수출컨설팅 등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국 위생(검역) 기준 충족을 위한 질병검사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
- (1-3. 관상어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관상어 산업육성·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자격증 고도화 및 자조금 지원 등 민간 중심의 성장 생태계 조성

## 2. 관상어산업의 미래 산업화

- (2-1. AI 기반 응용제품 개발 및 관상어 기술 고도화 및) AI·IoT 관상 수조·용품 등 기술개발, 해수, 토속, 희소 관상어 품종 개발
  - \* 관상어 용품 Big 3(여과기, 기포기, 조명) 대상 첨단 고부가가치 스마트 기술개발 등 추진
  - \*\* CITES 규제 대상 해수 관상어 양식 기술 확보, 각시붕어 등 담수 토속 어류 관상 가치 향상 및 담수가오리 등 희소 관상어 고부가가치 연구 추진
- (2-2. 디지털미디어 활용 강화) 관상어 정보·서비스 제공 'Pet Fish 플랫폼'\* 구축 및 소셜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확산
  - \* 품종별 특성, 사육·질병관리·증식 기술정보 제공 및 온라인상담·챗봇 서비스 추진
  - \*\* 우리부 등 SNS 채널을 통한 콘텐츠 제작·활성화, AR/VR 첨단 기술 접목 체험 및 심리치료 콘텐츠 개발·활용, 대표 관상어 굿즈 등 개발

### 3. 관상어 문화가치 창출

- (3-1. 일반 국민의 관상어 문화체험 확대) 체험버스 운영, 팝업전시관, 아쿠아카페 등 관상어 체험 기회 확대
  - \* 찾아가는 아쿠아드림버스 운영, 우리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팝업전시관 개최 등
- (3-2. 관상어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 관상어 전문인력양성 및 '스마트 양식해(海)'와 연계한 경진대회 개최 등 대국민 관심도 제고
  - \* 관상어 양식 직무 과정 신설(STEP, 노동부), 찾아가는 관상어 교육 등 추진
- (3-3. 관상어 분야 동물복지 실현) 동물복지 지침 수립·홍보, 질병 관리 등으로 관상어 동물복지 구현
  - \* 수조 밀도, 수질관리 등에 관한 동물복지 지침, 관상어 무상 입양플랫폼 및 생태계 교란·동물복지 훼손 등에 대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홍보
  - \*\* 관상어 수입검역 및 주기적 질병 예찰, 관상어 의약품 효능·사용 방법 등 제공 및 수출 무병 증명(비단잉어 등) 등을 위해 「구역화 질병 관리 방안」 마련